

요리 도전서 식물기르기, 영어공부까지 “내 삶은 계속”

‘잠시멈춤’ 서울시민 어떻게 지내나

자녀들, 화과자 조리 간식으로 SNS 놀이방법 공유 ‘과학놀이’

자취식량 대파·루꼴라 기르기도 달고나 커피 등 유행 레시피 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달 2일부터 2주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기간이 학교 개학 전인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들은 자율적 자가격리 노하우를 이웃에게 소개하며 코로나19 사태에 슬기롭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시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336명으로, 신규 확진자 83.3%(5명)가 해외접촉 관련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흘간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 함께 실천해요



/유토이미지

22일 30%에서 23일 50%, 24일 83.3%로 늘었고 지역 사회를 통한 집단감염은 줄고 있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힘을 보태면서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들고 있다.

잠시 멈춤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 주부 김모 씨는 “요즘 우리 애가 주말에 화과자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보고는 재료를 사달라고 하길래 사줬더니 3시간 정도를 투자해 화과자를 완성했는데 제법 잘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덕분에 우리집 간식으로 화과자가 등장했다”면서 “주말마다 냉동실이 채워진다”며 즐거워했다.

개학 연기와 재택근무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부모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놀이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거울이나 도자기 그릇에 유성 보드마카로 단어를 적은 다음 물을 부으면 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학 놀이를 했다”며 “다이소에서 천원 주

고 구입한 보드마카로 아이와 한시간 재미나게 놀았다”며 뿌듯해했다. 그는 “쿠팡에서 젤리가루랑 몰드, 초코만들기 키트 등을 사서 다양한 놀이를 하며 답답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20~30대들은 취미 찾기에 나섰다. 서대문구 신촌동에 사는 최승하(32·가명) 씨는 “약속도 취소되고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SNS에서 유행하는 건 한 번 쯤 다 시도해봤다”며 “달고나커피, 수풀레 오믈렛, 포켓팅(감자(Potato)와 매표(Ticketing)를 합친 신조어)까지 안 해본 게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천 번 주물러 만드는 우유아이스크림만 하면 도장깨기 완성”이라며 “근면 성실한 민족답게 코로나에도 투두 리스트(할일 목록)가 끊임없이 생성돼 재밌다”며 활짝 웃었다.

취업준비생 이정현(28) 씨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꺼려져서 자취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파랑 루꼴라를 기르는데 잘 자라서 기쁘다. 다음에는 방울토마토랑 바질도 키워볼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공채

가 안 떠서 불안했는데 식물 기르기 같은 취미가 생겨 잡념을 떨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직장인들은 잠시 멈춤 기간에도 자기 계발에 몰두했다. 회사원 정모(34) 씨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사람들이 대거 잘 려나가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다”며 “나만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씨는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봤던 문법책도 다시 사고 영어 쉐도잉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양킹’도 구독하면서 따라 하고 있다”며 “영어 외에 재테크도 공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학교 개학 시기인 4월 5일 까지 시민들에게 최대한 집에 머무를 것을 당부하는 등 강도 높은 잠시 멈춤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 행동 지침으로 ▲ 모임 연기·취소 ▲ 유증상 시 출근 금지 ▲ 매일 소독·환기 ▲ 불필요한 외출 자제 ▲ 2m 건강거리 유지 ▲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버스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나선다

버스회사-회계법인 유착 차단

회계법인 17곳, 감사반 2곳 선정

전체 65개 시내버스회사 감사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 버스 회사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풀을 구성하고 공동채용제 등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쳐우 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운전원 채용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논란,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시는 작년 10월부터 노·사와 긴밀

한 논의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시는 버스회사의 외부감사인을 맡을 회계법인을 각 버스회사가 직접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버스회사들이 회계법인 풀(pool)을 구성하도록 했다. 버스 회사와 회계법인의 유착에 따른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회계법인 17개와 감사반 2개가 풀로 선정돼, 올해부터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게 된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회계법인 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버스회사들이 ‘공동채용제’를 시행하도록 해, 기존의 회사별 채용에서 발생하던 금품요구·금품수수등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노·사·정으로 채용심사위원회

를 구성해 서류심사를 담당도록 할 예정이다. 또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한 버스회사는 일정 기간 모든 채용 관련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 넘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 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도 신설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라며 “앞으로 재정지원 협의회,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사회적거리두기에 수돗물 사용도 줄었다

서울시, 전년比 평균 7% 감소
영업용 33%, 공공용 97%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이달 2일부터 진행되면서 서울 수돗물 사용량도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된 가정용 수전 982곳은 사용량이 평균 6.5% 감소했고, 일반용(영업용) 수전 10곳은 평균 32.8%, 학교나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이 사용하는 ‘공공용’ 수전 4곳의 사용량은 평균 97.1% 줄었다.

시는 이런 수돗물 사용량 감소가 올해 3월 2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시민실천 캠페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출 및 모임 자제, 사회적 행사 취소, 개학 연기,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종교행사 잠정 중단 등이 수돗물 사용량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돗물은 계절, 기온,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용량이 증감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처럼 특정 기간 내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수돗물의 사용량 모두가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 창업 지원

한국관광공사

사는 내달 20

일까지 스마트

관광 분야 창

업에 도전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4

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예비창업 퍼키지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사는 예비창업자를 선정해 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과 창업자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보증금 면제·직업교육 등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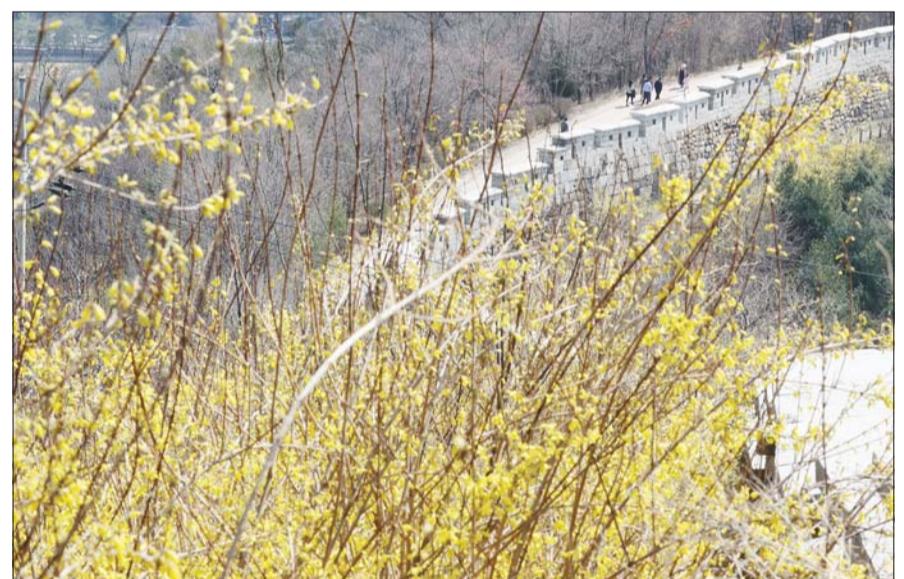
시가 지난해 8월 쪽방촌 거주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149명에게 이 유리를 물은 결과 36.2%는 ‘신청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5.5%는 ‘보증금이 부담된다’, 20.1%는 ‘임대주택에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에 시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실시,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돋기로 했다.

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입한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서울시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황 사업은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권 실현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꽃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

원연한 봄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종로구 한양도성 성곽

길을 따라 개나리가 만개해 있다.

/연합뉴스

쪽방·고시원 거주자 공공주택 입주 지원

서울시, 보증금 면제·직업교육 등

서울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의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돋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비(非)주택 거주자 주거 상황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억960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우선 시는 중구 회현·중림·황학동, 용산구 동자·갈월동, 동작구 노량진·상도동, 관악구 대학·서림동, 구로구 가리봉·구로2·구로3·구로4동 등 비주택 밀집 지역에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면제해 주고 생필품과 이사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할 임대주택 물색, 입주 신청과 같은 절차적 도움을 주고 직업교육도

/김현정 기자